

중국 가극을 통해서 본 시진핑 3기 문화예술의 방향성

손수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 예술의 방향성을 중국 가극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진핑이 중국 최고지도자에 취임한 2012년 이후, 문화 예술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문화정치 양상은 갈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문화정치의 유용한 도구로서 가극이 활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945년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한 민족가극은 정치적 목적성을 수반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고, 오늘날도 중국 사회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같은 경향은 시진핑 정권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작품성과 가치가 뛰어난 민족가극을 선정하여 창작과 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현재까지 약 30여 편에 가까운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작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민족가극을 집권세력 강화와 정치적 선전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작품의 소재와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중 특기할 만한 작품 세 편을 골라 콘텐츠 비평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는 가극을 활용해, 목표로 했던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홍보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돌발변수를 인민의 단결과 희생으로 포장해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가극은 서양 오페라를 재전유 시킨 흥미로운 공연예술콘텐츠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가극과 문화 예술이 지나친 정치도구화를 지양하고 예술성 향상에 치중한다면 동시대 동아시아 공연예술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주제어: 중국오페라, 민족가극, 시진핑 3기, 샤오캉, 중국 특색 사회주의, 흥색 가극, 민족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접수일(2023년 3월 20일), 수정일(2023년 4월 24일), 게재 확정일(2023년 4월 25일)

I. 들어가며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의 제20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 선출 되었다. 시진핑은 2018년 2021년 중국공산당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통해 종신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고 2022년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지으며 3기 집권체제로 들어섰다. 그리고 2023년 3월 10일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5년 임기의 국가 주석으로 3번째 선출됐다.¹⁾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집권한 시 주석은 지난 10년의 집권 기간 동안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²⁾를 통치철학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2021년 3월 양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이하 “‘14·5’ 계획 강요’³⁾)를 확정하였다. “‘14·5’ 계획 강요’에 따르면,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

-
- 1) 3기에 들어서 단일체제의 독보적인 권력 지도부를 꾸린 시 주석은 보장된 5년을 초과 하는 초장기 집권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격대지정의 전통이 시 주석 체제 하에 폐기된 상황에서, 최고 지도부 안에 차기 주석 후보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시진핑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중국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유의미한 지표를 보여줄 수 있다
 - 2)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취임하기 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2011. 10. 18)에서 채택한 「문화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큰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문화 창조를 진행하고, 중국을 사회주의 문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결론짓고 있다.
 - 3) ‘14.5규획’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년 계획”의 준말이다. 1953년 처음 시작되었고, 1963~1965년 3년에 잠시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는 총 19편, 65장, 192절, 약 7만 5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2021년 3월 양회에서 확정된 ‘14.5규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는 지난 ‘5년규획’과 달리 2035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설 목표와 ‘첫 번째 100년(1921~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목표를 실현한 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에 집중하여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화민족 부흥’을 달성하는 <2개 100년 목표>를 완성해서 ‘중국의 꿈(中国梦)’⁴⁾을 이루자고 밝히고 있다. 전면적 ‘샤오캉(小康)⁵⁾ 사회의 실현은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한다는 것으로 2023년 현재 공식적으로 ‘샤오캉’ 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발표했다. 집권 초반기에는 이 두 개의 어젠다 중에서 ‘중국몽’의 전파에 보다 집중했다면, 3기에 들어서는 ‘샤오캉’ 사회건설이란 성취를 확고히 하고 ‘다통(大同)사회’⁶⁾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상이 나타난다.⁷⁾

이 같은 변화를 중국의 가극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양 오페라의 영향 아래,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창작되는 중국 가극은 중국 정치와 밀접한 발전을 맺으며 발전해 왔다. 중국 가극의 탄생 역시, 특정한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이뤄졌고 그 관계

4) 2013년 중국 국가주석 취임식에서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꿈은 국가의 꿈이며, 모든 중국인의 꿈이다” 라는 ‘중국몽’(中国梦)을 국경 어젠다로 설정하고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개념을 공식화했다

5) 샤오캉(小康)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쩌민 전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보고에서 ‘미래의 중국 대다수 인민과 그 가족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일하는 만족스러운 장면’을 샤오캉으로 표현한 바 있다

6) 다통사회(大同世界)란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세상 사람들의 공유물이다(大道之行也, 天下爲公)를 의미한다. 여기서 ‘큰 도’는 이상향의 국가통치 제도로 공자의 이상적 사회인 ‘다통大同’의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만민의 신분적 평등과 재화의 공평한 분배, 인류의 구현으로 특징되는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 형태. 공자가 주장한 이상사회를 말한다.

7)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처음 선출될 때 ‘두 개의 100년’ 목표를 내세웠던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7월 첫 번째 100년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두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인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특히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주석의 정책방향이 여전히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가운데 ‘공동부유’를 목표로 빈곤 퇴치와 샤오캉 사회 강화에 힘써 다통사회를 이룩하려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첫 번째 중국 가극으로 인식되는 가극 〈백모녀(白毛女)〉는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1945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창작, 공연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강자매(江姐)〉, 〈홍호적위대(洪湖赤卫队)〉, 〈유호란(刘胡兰)〉, 〈소이흑의 결혼(小二黑结婚)〉 등 봉건주의 타파와 혁명정신의 고취를 위해 창작된 많은 작품이 등장했고 오늘날까지 공연되고 있다.⁸⁾ 중국은 이 같은 작품들을 가리켜 서양의 오페라와 구별되는 중국 고유의 신가극(新歌剧)이라고 명명했다.⁹⁾ 신가극은 향후 민족가극(民族歌剧)이라는 명칭으로 발전하며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사상 전파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1942년 중국 연안문예강화에서 마오쩌둥이 “모든 예술은 사회주의 이념에 복속한다.”라고 언급한 이래 40년 가까이 중국의 문화예술은 이를 모토로 지켜왔다.¹⁰⁾ 덩샤오핑 집권 이후 1979년 문대회에서 “모든 문화예술은 인민에 복속한다.”고 예술창작의 목적과 대상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도 민족가극은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공산당 지도부와 집권 계층을 위해 민족가극을 활용하는 경향은 시진핑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6월 중국 문화부는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中国民族歌剧传承发展工程)을 발표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민족가극의 창작 및 제작, 대중화 및 홍보, 인재양성과 이론연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¹¹⁾ 중

8) 李詩原·齊栢平, 『中國近現代音樂史卷-音樂表演藝術與作曲技法理論』, 人民音樂, 2008, 18쪽.

9) LIU AIZHEN, 「오페라 〈백모녀(白毛女)〉 연구: ‘희아(喜儿)’의 이미지 변천과 음악적 표현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31쪽.

10) 마오쩌둥의 연안문예강화(延安文藝講話): 모든 문화와 문학예술은 반드시 어떤 계급과 정치 노선에 속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 초계급적 예술, 정치와 병행하거나 상호 독립된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예술은 정치에 예속되어야 하고 정치에 복종하도록 통일되어야 한다. 문예비평의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기준이고 하나는 예술적 기준이다. 이 가운데 정치적 기준이 우선이고, 예술적 기준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

11) 2017년 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화부 중점 민족가극

국에서 민족가극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¹²⁾ 민족가극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사업이 발표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가극이 중국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에 선정작들을 대상으로, 선정 이유와 의미를 찾아보고, 주요 작품을 분석하여 가극을 통해 시진핑 3기 중국 문화 예술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저자는 이전 연구에서 중국의 서양음악 수용과 중국오페라의 발생에 대해 고찰했고, 이어서 시진핑의 문화정치 양상을 중국 가극을 통해 고찰한 바 있다.¹³⁾¹⁴⁾ 이번 연구는 그와 관련된 후속 연구로서 시진핑 주석 3기를 맞이하여 중국 지도부가 중국오페라를 문화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양상과 특징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중국몽’보다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실현이 강조되는 등 선행연구 이후 일어난 변화와 원인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에 선정된 작품들의 연도별 목록을 알아보고 이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문헌조사와 공연 상황 조사연구, 공연 기록의 분석과 등을 비평적 관점으로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최근 중국 가극의 창작 경향은 시진핑이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개념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또한 2021년 3월 양회에서 확정된 “14·5’ 규획 강요’에 따라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완성하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계획에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양

창작지원 사업 전대에 관한 통지를 살펴보면, 민족가극의 창작의 필요성과 지원 원칙, 조건, 심사 및 지원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https://zwgk.mct.gov.cn/zfxxgkml/wysy/202012/t20201205_916395.html(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 12) 刘暄, 「当代中国民族歌剧的美学精神」, 『贵州民族研究』, 제6권, 2018, 97쪽.
- 13) 손수연·이병민, 「중국 신가극을 통한 동아시아 오페라의 재창조」, 『인문콘텐츠』, 제44권, 인문콘텐츠학회, 2017, 66쪽.
- 14) 손수연, 「현대 중국 민족가극을 통해 본 문화 정치적 양상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0권 제19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0, 64쪽.

상도 보이고 있다. 중국 가극을 통해 3기에 들어선 시진핑 시대의 문화 예술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공연예술콘텐츠로서 중국 가극의 실질적인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예측된다.

II. 중국 가극의 태생적 특징과 한계

중국에 서양음악은 이미 당나라 때 전래된 것으로 인식된다.¹⁵⁾ 이후, 송·명 시대를 거쳐 청나라 시기까지 유럽 선교사를 통한 서양음악의 유입은 꾸준히 지속됐다. 그러나 서양음악과 접촉한 것은 황제를 비롯한 일부 지배계급에 제한되었을 뿐, 중국 사회 전반에 서양음악이 전파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본격적으로 중국 민중이 서양음악을 접한 것은 1840년대 아편전쟁 이후의 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신식 군대의 군악과 기독교의 선교 음악, 신식 학교의 창가 교육 등의 경로로 중국 사회는 다양한 양식의 서양음악을 접하게 된다.¹⁶⁾ 오페라도 청나라 건륭제 때 황제의 궁정에는 이탈리아 가극단이 방문하여 오페라부파를 공연하는 등 청나라에 소개가 되었지만 중국 대륙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근대화가 시작된 19세기 중엽 이후로 파악되고 있다.¹⁷⁾ 이 시기 중국에서는 서양음악과 중국의 정서와 문화를 결합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오페라를 모방한 초기 형태의 중국어 음악극도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음악극 양식에 특히 주목한 것은 1930년대부터 연안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중국공산당이였다. 당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서양 오페라가 가진 다양한 특성 중 두 가지를 눈여겨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음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드라마 형태의 음악 양식이다. 오페라의

15) 민경찬 외,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57쪽.

16) 손수연, 「동아시아 공연예술콘텐츠로서 일본오페라의 소재적 다양성 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제4호, 인문사회21, 2020, 2095쪽.

17) 姜涛, 『中国歌剧艺术民族化发展与表演艺术研究』, 中国纺织出版社, 2021, 7쪽.

노랫말이나 대사는 중국공산당이 민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악보라는 약속된 보편 기호를 사용하는 오페라는 악보만 익히면 언제 어디서든 재현 가능했다. 둘째, 오페라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악적 장치들이다. 합창, 중창 등 다성부의 표현방식은 단선율로만 된 동양음악에는 없었던 양식이었다. 극을 통해 민중 계급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했던 중국 공산당에게 합창은 상당히 유효한 도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안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의 고유한 가극을 창작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적인 초기 작품들을 창작했다. ‘양가극’¹⁸⁾이라고 이름 붙은 이러한 가극들은 중국 북방의 농민음악극을 재해석한 것이다. 몇 번의 시범 작품을 거쳐 연안에서 1945년 4월 26일 가극 〈백모녀(白毛女)〉를 공연하며 중국 특색 오페라를 시작한다. 봉건지주에 학대당하던 소작농 계급의 여성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내용의 〈백모녀〉는 초연 당시 ‘주제가 좋고, 좋은 연극이며, 시의에 잘 맞는다.’(“《白毛女》主題好, 是一個好戲, 非常合時宜”)라는 공산당 중앙 지도부의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마오쩌둥의 연안문예강화 이후 창작된 이 가극은 문예가 노동자, 농민, 군인 등 당시 무산계급에 봉사한다는 취지를 실천하여 연안 민중은 물론 각 해방구¹⁹⁾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를 가졌고, 향후 중국의 문화 예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당시에는 항일전쟁, 국민당 정권과 이념 갈등이 한창이었지만 공산당이 승리한 이후의 중국에는 민족 갈등이 아닌 계급갈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더욱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18) 양가극(秧歌劇) 연안 해방구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예술형식으로 노동자, 농민, 군인 등이 민속 예술을 연구해 ‘양가극’을 만들었다. 줄거리는 단순하며 2-3인의 등장인물에, 소품과 분장도 간단히 갖춘 채 노래와 춤을 함께 공연하는 초기형태의 음악극이다. 일반적으로 향토민요, 향토연극, 민요와 무용음악 등을 차용했다.

19) 해방구(解放區) 1930-40년대 중국의 항일 전쟁 및 국공 내전 시기에 홍군으로 불리는 공산당 정권이 통치한 지역을 의미함.

이처럼 중국 가극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와 건국 주도세력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해 창작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됐다. 이러한 성향의 작품들은 이른바 ‘홍색가극’²¹⁾이라 부르며 혁명 정신과 사회주의 개혁의 내용을 담은 가극들로 중국 가극의 전형이 됐다. 중국의 가극은 서양 오페라를 표방하여 형식이나 구조는 오페라와 유사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음악형식이나 발성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오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전통적인 음악과 발성법이 많이 나타난다.²²⁾ 〈백모녀〉도 서양 오페라의 틀을 바탕으로 중국 북방의 민요를 토대로 한 음악, 경극의 발성법, 연출 방법 등에서 중국 전통예술 양식을 많이 혼합했다. 이와 같이 중국 가극이 서양의 오페라와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은 판강체(板腔体) 형식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²³⁾ 중국 가극은 판강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어 가사의 전달이 용이하게 하고 관객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었다.²⁴⁾ 그러나 이런 특징 때문에 서양 오페라와는 크게 다른 성격의 가극으로 발전했다. 중국이 시도한 민족화에는 성공했음지는 모르나 오페라라는 보편적 공연양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공연예술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가극 전문 가수가 아니면 이 작품을 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민족가극은 내수용 공연예술에 머무르는 것으

20) 兰爱民, 『《白毛女》延安解放区首演成功背后的思考, 安徽省科学教育研究会安徽省老科技工作者协会』, 2020, 176쪽.

21) 안과 황이라는 두 황제로부터 비롯된 고대 설화는 중국이 건국 초기부터 강력한 홍색 숭배 문화를 가졌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중국에서 홍색 문화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과정에서 인민들의 물질과 정신적 힘이 이룩한 정도와 성과를 가리킨다. 따라서 홍색 가극이란 이러한 중국 사회주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중국 오페라 작품을 의미한다.

22) 왕단, 「중국과 서양의 발성법 비교를 통한 중국 발성법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주소연의 발성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47쪽.

23) 판강체(板腔体) 중국 전통 희곡에서 비롯된 민속 가창의 한 형태로, 박자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음악과 운율의 형식이다.

24) 鲁雨奇, 『扎根沃土 走向世界——论中国歌剧的民族化与国际化趋势』, 大众文艺, 2021, 122쪽.

로 나타난다. <백모녀>로부터 시작된 중국 가극은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 수단이라는 목적성과 함께 특유의 형식으로 성립이 됐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작품들이 195-60년대 창작되며 그 계보를 이었고, 창작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80년대 개혁과 개방 시기에도 이러한 가극들은 ‘민족가극’이라는 보다 중국 특색을 강조한 명칭으로 바뀌어 꾸준히 창작됐다.²⁵⁾ 그러나 중국 가극의 이러한 특성은 예술성의 고양이나 대중의 관심보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정치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생산하고 보급해왔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오페라를 창작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오페라라는 공통의 텍스트로 자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세계무대에 알리려는 것인데 중국 가극은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정치선전용 공연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

2017년 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이하 중국 문화부)는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中国民族歌剧传承发展工程)을 전국의 문화 관련 공공기관과 오페라극장에 통지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문화부가 민족가극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창작지원 사업을 전개한다는 의미이다. 이 통지에서 중국 문화부는 민족가극이 중국오페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오페라라는 외래 예술 양식을 민족의 전통문화와 긴밀하게 결합시켜 민족가극을 창작했다고 하였다. 다수의 민족가극들이 창작, 공연되어 오페라예술의 민족화를²⁶⁾ 촉진하고, 중국 민족가극의 우수한 전

25) 1979년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해 “문예가 정치에 종속된다는 구호를 앞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됐고, 이후 자유로운 창작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념과 혁명을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대전제가 사라진 현재 중국 문화예술계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중국 특색 신 사회주의가 그것으로 파악된다.

26) 徐潜, 「中国歌剧的民族化与国际化趋势」, 『音乐生活』, 제4권, 2020, 83쪽.
민족화 : 중국 문화예술에 있어 ‘민족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파악하는 개념과는 차

통을 형성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고취하며, 민족가극이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와 시진핑 총서기의 문화예술 번영발전에 관한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중국 민족가극 계승 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민족가극의 창작과 생산, 폭넓은 보급, 인재 양성, 이론 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가 2015년 10월 19일 신화통신을 통해 전면 발표한 《사회주의 문화와 예술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견》(中共中央关于繁荣发展社会主义文艺的意见)²⁷⁾ 이 의견서는 6개 부문, 25개 항목으로 나뉜다. 여러 부문 중에서 특히 가극 창작과 관련이 있는 3. 중국 정신을 사회주의 문화와 예술의 혼으로(让中国精神成为社会主义文艺的灵魂) 부분을 보면, 아래 ⑨, ⑩, ⑪, ⑫ 네 개의 세부 항목이 서술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중국몽’, 사회주의 핵심 가치, 애국심, 전통문화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⑨ ‘중국몽’ 시대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현대 문화와 예술 창작의 뚜렷한 주제다. ⑩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육성하고 계승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는 중국 정신과 시대의 표현의 집약적 표현이다. ⑪ 애국심의 주요 주제를 노래하라. 애국심은 중국 정신의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문화와 예술 창작의 영원한 소재이기도 하다. ⑫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는 중화민족의 정신적 생명선이며 우리가 세계문화의 숲에 설 수 있는 견고한 토대이

이가 있다. 중국의 민족화란 중국의 정서와 문화가 결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에서 파악하기에 중국의 여러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국가이나 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거론하지 않는다. 중국은 다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보는 다원일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 개별 민족의 특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화의 의미는 일체화된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융합한 것을 말한다.

27)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xinwen/2015-10/19/content_2950086.htm?gov, (검색일 2022년 12월 1일).

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의견서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명의로 통지되었지만 내용은 이미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2012년 개최된 18차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각종 문화 예술 관련 좌담회와 회의를 비롯, ‘14·5’ 계획 강요’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던 국정 어젠다와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지침은 앞서 기술한 2017년 민족가극 창작지원 사업에도 나타난다. 중국 문화부는 민족가극 창작지원 사업을 공고하며 이 가운데 2번 지원 조건을 보면 ‘③ 중국몽 주제에 집중하고 민족정신, 시대정신 및 실제 생활을 반영하고, 조국을 노래하고 영웅을 예찬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육성 및 홍보하고 애국주의의 주요 선율을 노래하도록 한다. ④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선양하고, 민족문화 본체를 굳게 지키며, 중국의 희곡과 민요 등 전통예술의 영양을 흡수하는 동시에, 서양식 오페라의 성공적인 작법을 참고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역시 문화 예술 창작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의견과 2015년 발표된 <사회주의 문학과 예술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의 창작 지원을 발표하면서 창작 방향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은 중국의 민족가극이 지닌 태생적 한계와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지침 아래, 2018년부터 2022-23년 시즌까지 위의 창작조건에 부합하는 민족가극들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공연되었다. 2018년과 19년에는 중점지원 작품과 순차지원 작품으로 나눠 각각 지원했으나 2020-21년 시즌부터는 2년으로 간격을 늘리고 중점지원 작품 수를 다소 늘려서 지원하고 있다. 선정 작품은 중복 선정이 가능하여 전년도에 선정되었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선정이 가능하고, 창작과 개발보다는 공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 1>은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이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6년간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에 선정된 지원 작품 목록이다. 선정된 민족가극의 선정연도와 제목, 작품의 간단한 내용과 성격, 제작단체와 공연장

소를 필자가 표로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가극 〈이몽산(沂蒙山)〉의 경우, 2018년 12월, 중국 지난에서 초연한 이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되며 여러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다. 산둥성 선전부, 산둥성 문화관광청, 린이(临沂)시가 공동 제작한 대형 민족가극 〈이몽산〉은 1938년 마오쩌둥 휘하의 팔로군 115사단이 산둥 이몽산에 혁명근거지를 세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항일운동과 해방투쟁을 하는 과정을 비장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전 연구에서 마오쩌둥의 정통 후계자로서 사회주의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가 나타난 작품으로 분석한 바 있다.²⁸⁾ 〈이몽산〉은 흥색 가극으로 분류되지만 사회주의 이념을 직설적으로 주입하기 보다는 풍부한 극적 구성을 첨가하여 현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한 가극인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아래의 〈표 1〉에서 2018년과 2019년은 중복되는 작품이 많은 순차 지원 작품을 제외한 중점 지원 작품만을 정리했고, 이 같은 구분이 없어진 2020-21, 2022-23년도는 선정 가극 전체를 수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예술적인 면보다는 ‘중국몽’, ‘샤오강’, 애국주의, 사회주의, 전통문화 등 중국공산당이 중요시하는 이념과 사상이 반영된 작품들이 정부 주도적으로 창작, 공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가극들의 공연영상 실황을 분석한 결과,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무대효과를 사용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연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 예술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지난 6년간 중국 문화부가 지원한 민족가극 선정 작품들의 주제와 특징을 표로 정리해 살펴본 것은 현재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문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려는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문화정치적인 의도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8) 손수연, 「현대 중국 민족가극을 통해 본 문화 정치적 양상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0권 제19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0, 73쪽.

〈표 1〉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中国民族歌剧传承发展工程) 선정 작품

선정 연도	작품 수	작품명	창작 및 제작	기획	주요 내용 및 주제
2018	1	평범한 세계 (平凡的世界)	푸젠성 가무극원	푸젠성 문화청	중국의 도시화와 농촌 변화의 한가운데서 평범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성장하며 성공하는 이야기
	2	이몽산 (沂蒙山)	산둥 가무극원	산둥성 문화청	1938년 마오쩌둥 휘하의 팔로군이 산둥 이몽산에 혁명근거지를 세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항일운동과 해방투쟁을 하는 과정을 비장하게 재현한 작품
	3	진애낙정 (尘埃落定)	충칭 가극원	충칭시 문화위원회	티베트 작가 아라이의 장편소설 원작. 티베트의 권력자 투스의 아들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보임을 자처하는 주인공 ‘나’의 눈으로 중국이 다스리게 되는 티베트 민족 흥망의 근대사를 그리고 있음
	4	붉은 수수 (红高粱)	국방대학 군사문화 학원	국방대학 군사문화 학원	중국 작가 모옌이 쓴 소설 〈홍까오량 가족(红高粱家族)〉을 원작으로 한 작품. 192-40년대 중국 까오미 현에서 일제의 갖은 악행에 시달리던 중국 민족들이 일본군에 맞서는 이야기 ²⁹⁾
	5	명운 (命运)	중양가극원	중양가극원	개혁 개방 시기를 배경으로 저장성 루진에서 여주인공 자오샤오원이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하여 성공하고 고향의 부를 일으키는 이야기
2019	1	세 개의 자물쇠 (三把锁)	산시성 가무극원	산시성 문화관광청	빈곤 퇴치를 소재로 한 가극
	2	전한 (田汉)	상하이 가극원	상하이 문화관광국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 극작가 전한의 일생을 다룬 가극. 그의 재능과 애국심에 관한 내용
	3	붉은 배 (红船)	저장 가무극원	저장성 문화관광청	1921년7월23일년 저장성에서 있었던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두고 일어난 난관 극복을 소재로 함
	4	도로 (道路)	중양가극원	중양가극원	신중국과 함께 성장한 대형 국영기업 승리동력 공장의 이야기

29) 이 작품은 2018년 중점 지원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제목과 선정 목록만 존재할 뿐, 이후 공연영상이나 공연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의 황딩산(黄定山) 현)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극단 단장(中国人民解放军总政治部歌剧团团团长) 측에 문의해 조사한 결과, 국방과대학 군사문화학원이 당시 이 작품으로 지원금을 받고 공연을 준비하던 중 내부 사정으로 공연이 중단돼 실제 공연은 수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전화 면담 조사일 2023년 3월 20일).

2020 - 2021	1	강물은 동쪽으로 흐른다 (一江清水向 同流)	충칭시 가극원	충칭시 문화관광 발전위원회	양쯔강을 위해 충칭 문예인들이 만든 가극. 생태보호와 생태문명 건설이라 는 현실적 주제를 다룬 최초의 민족가극
	2	천사일기 (天使日记)	후베이성 가극무극원	후베이성 문화관광청	코로나19와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 진들의 희생과 헌신
	3	달빛 덮인 농신 (月照盖头领)	허난성 우슈지 가극무지컬 연구소	허난성 문화관광청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항일전쟁 발발 90주년을 기념하고 허난성의 영웅 들과 항일투쟁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든 민족가극
	4	홍군의 반쪽 이불 (红军的半条 被子)	창사 가극원	후난성 문화관광청	1930년대 홍군 대장정의 과정에서 있었 던 실화를 소재로 한 흥색 가극. 홍군이 인민에게 나눠준 반쪽 이불에 관한 내용
	5	장푸칭 (张富清)	중국 가극무극원	중국 가극무극원	2019년 시진핑 주석에게 ‘공화국 훈장’ 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투쟁가”로 선정 된 실존 인민영웅
	6	청춘의 노래 (青春之歌)	국가대극원	베이징시 문화관광국	작가 양묘의 동명 소설을 각색하여, 중 산층 지식인 린도정이 혁명의 길을 걷 고, 노동자 계급의 전사가 되는 복잡한 과정을 다룸
	7	국.가 (国.家)	칭다오시 가극원	산둥성 문화관광청	개국대전 개좌를 앞두고 국민당이 개국 대전을 파괴하려는 공작에 맞서는 이야 기
2022 ~ 2023	1	산해정 (山海情)	국가대극원	베이징시 문화관광국	1990년대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 回族自治区)을 배경으로 열악한 사막 지역인 닝샤의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
	2	등세창 (鄧世昌)	랴오닝 가극장	랴오닝성 문화관광청	갑오 해전을 배경으로 북양수군을 지휘 한 등세창과 다른 인물들 간의 전우애, 부부에, 동료애
	3	선행자 (先行者)	셴젠 가극무극원	광둥성 문화관광청	개혁 개방 시기 혁신 도시인 선전에서 세 열정적인 청년들의 선구자적 역할과 도전을 그림
	4	홍두견 (红杜鹃)	푸젠성 가극원	푸젠성 문화관광청	1949년 초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
	5	남이만을 노래하다 (唱响南泥湾)	중국가극무 극원	중국 가극무극원	청년 학생들이 남이만에서 359여단 대 생산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다룸. 청 년과 학생들이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는 내용
	6	투쟁 (奋斗)	중양가극원	중양가극원	우주 비행에 관한 이야기

2022 ~ 2023	7	도화선 (桃花扇)	장쑤성연예 집단 가극무극원	장쑤성 문화관광청	서양 가극과 중국 곤곡(昆曲)의 결합. 명 말 청초 지식인의 '감정적 비극'을 묘사
	8	당가만가신 (唐家湾侨批)	쑤하이 가극단	광둥성 문화관광청	화교 양성여가 조곡으로 향하다 바다에 서 목숨을 잃고 임종에 남긴 편지를 통 해, 고난의 세월을 보낸 화교의 동포애 와 중화민족주의를 그려냄
	9	난봉교 (鸾峰桥)	푸젠성 가무극원	푸젠성 문화관광청	푸젠(福建)성 난봉교(鸾峰桥)를 배경 으로 공산당의 지도 아래 빈곤에서 벗어 나 부유해지는 이야기
	10	강정정가 (康定情歌)	상하이 음악원	상하이 음악원	티베트를 배경으로, 1950년 중국 인민 해방군이 4년에 걸쳐 14개의 설산을 넘 어 천장도로를 건설한 한족과 티베트족 사이의 이야기

위 <표 1>로 정리한 작품을 크게 ‘샤오캉’(빈곤 퇴치와 ‘공동부유’), 사 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다룬 이른바 홍색 가극, 애국(민족)주의, 전통문화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주제별 특징과 성격을 다시 한 번 분류해 보면, 총 26개 작품이 ‘샤오캉’ - 8편, 홍색 가극 - 8편, 애국주의 - 9편, 전통 문화 - 1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면, 중국 여유부가 2017년 ‘중국민 족가극계승발전공정’ 사업을 시작하며 핵심적인 지원조건으로 제시했던 ‘중국몽’ 주제의 집중, 중국의 우수 전통문화 계승, 서양 오페라의 민족화 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샤오캉’의 사회 실현 은 ‘중국몽’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중간단계이므로 2022년 ‘샤오캉’ 사회 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선언했다는 것은 시진핑 임기 안에서 ‘중국 몽’의 실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특 히 3연임을 공식화한 2022년 10월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네 차 례나 언급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시진핑의 임기가 시작된 2012 년 제18차 연설에서는 ‘중국몽’이라는 거대담론을, 2017년 제19차 당대 회 연설에서는 ‘샤오캉’ 사회의 실현과 중국 특색 신시대 사회주의 이념 을 주제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공동부유’ 이념은 이번에 처음 강조

된 것이다.

여기서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이고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라고 말했다.³⁰⁾ ‘공동부유’는 마오쩌둥 주석 때부터 나온 개념으로 시 주석을 비롯한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이미 종종 언급해왔다. 그런데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진핑이 이를 부쩍 강조하면서, 분배를 새 지향점으로 제시한 것은 빈부격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막고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민족가극 지원 사업에 선정된 가극작품들은 이 같은 기초를 철저하게 반영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애국(민족)주의가 중국공산당이 이전 시대부터 중요시해온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 ‘공동부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샤오강’ 사회 실현 관련 소재의 민족가극이 지원 사업이 시작된 최근 6년간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관찰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IV. 시진핑 3기 문화예술과 그 방향성

시진핑 3기 문화 예술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에 선정된 민족가극 26개 작품 중에서 세 편을 선정해 ① 소재, ② 가극의 구성, ③ 작품의 의의 등 세 가지 요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 편의 가극은 2022-23년 선정된 <산해정(山海情)>, 2021-21년 선정된 <천사일기(天使日記)>, <홍군의 반쪽 이불(红军的半条被子)>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오페라 중에서 민족가극으로 구분되고, 중국 문화부의 지원 대상으

30)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시진핑 주석 제19기 중앙위원회 대표 업무보고 연설 전문

南充政法, <https://baijiahao.baidu.com/s?id=1746883170703766990&wfr=spider&for=pc>(검색일 2023년 1월 7일).

로 선정될 만큼 작품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가극들이다. 또한 창작지원 조건에 나온 바와 같이 ‘중국몽’과 같은 애국주의나 중국 민족주의,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등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명확히 부합하는 작품들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대규모의 제작비가 요구되는 대형 가극이다. 이처럼 대부분 유사한 조건의 작품들 중 아래 세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비등한 조건 가운데 드러나는 차이가 최근 시진핑 정권의 문화 예술 방향을 가늠하는데 있어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가극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산해정>은 그동안 ‘중국몽’에 치중했던 시진핑의 정책 방향이 ‘샤오강’ 사회의 강화로 무게중심을 이동한다는 신호와도 같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산해정>은 먼저 2021년 1월 저장성 TV 드라마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동명의 드라마를 민족가극으로 재탄생 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0년까지 ‘샤오강’ 사회 실현을 성취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다통사회’를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해 왔다. 2021년 7월 ‘샤오강’ 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선언한 시진핑 주석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빈곤 퇴치와 ‘공동부유’를 3기의 큰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를 위한 성장보다 부의 분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산해정>은 이처럼 빈곤을 극복하고 ‘샤오강’ 상태에 도달한 다음, 모두가 잘 사는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인물들의 노력을 그리고 있다.

① 이 작품은 1990년대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를 배경으로 열악한 사막 지역인 닝샤의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2021년 1월 저장성 TV에서 동명의 드라마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중국 드라마 관련 상을 받았다. 1996년 중국 경제성장 초기에 오지로 분류되는 닝샤로 이주한 사람들이 당시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푸젠성(福建省)의 기술원조와 협업으로 부를 이루게 되는 역경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¹⁾ TV 드라마로 크게 인기를 끈 이 작품은 2023년 3월 8일 베

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민족가극으로 공연됐다. ② 이 작품의 배경이 중국 서북지역인 닝샤이기 때문에 가극에는 서북지역의 전통음악과 민요가 많이 삽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가극의 작곡가 멩웨이둥(孟卫东)은 서북 민요를 주요 음악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닝샤 일대에서 유행한 민간 가요이자 무형문화유산인 ‘화얼’(花儿)이 작품 곳곳에서 주요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부 산시성 민요 등 민속음악 요소를 충분히 흡수해 지역적 특색이 선명히 나타나게 만들었다. 작품 형식이 민족가극이기 때문에 역시 판강체 작법을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극을 구성했다. 이 작품에서 닝샤와 더불어 푸젠성이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악 선율은 푸젠성과 닝샤의 전통 음악적인 특징이 골고루 느껴지도록 배치되었다. 또한 사막인 닝샤의 지역적 요소가 생생한 무대미술로 표현되어 오지에서 ‘빈곤을 퇴치’하는 사업의 고난과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라는 평가를 들었다. ③ <산해정>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히 매력적인 요소이며, 빈곤과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인민들이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얻었다는 측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최근 강조하는 ‘빈곤 퇴치’의 슬로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가극이다. 현재 중국이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 때부터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 가극은 1945년 가극 <백모녀>가 그랬듯이 중국 정부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민족가극인 <천사일기>는 독특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탄생한 작품이다. ① 이 작품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전염병,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과 우한시의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31) 드라마 <산해정>의 시청률과 관련된 푸저우데일리의 기사. 감동적인 내용과 현실성을 살린 연출로 시청률 1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福州日报社数字报, <https://m.gmw.cn/baijia/2021-01/19/1302051247.html>(검색일 2023년 1월 10일))

허구의 인물인 간호사 란지넨이 쓴 〈전염병 일기〉를 바탕으로 허구가 실제가 결합하여 전개된다.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 기획, 제작한 이 가극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벌어진 일들을 내용으로 그해 10월 공연됐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진들도 희생되는 가운데 본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우한 의료진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뤄 큰 찬사를 받았다. 2021년 4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 우수무대예술작품전에 참가작으로 선정되고, 2021년 11월 제4회 중국오페라페스티벌에서 온라인으로 상영되는 등 코로나 시국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② 이 작품은 우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후베이성의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가극의 작곡가 역시 〈산해정〉의 작곡가와 같은 멩웨이둥(孟卫东)이다. 민중가극답게 민속적인 선율에 지역색이 느껴지는 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작품의 상황을 음악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판강체 작법을 사용하지 않고 현대 서양 오페라에 가까운 작곡 기법이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재가 되는 실제 상황이 워낙 극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출기법 없이도 감동적인 서사구조가 완성되었다고 본다. 하나의 가극 안에 세 개의 플롯을 배치하여 간호사 란지넨과 주변의 개인적인 이야기, 전염병과 의료진의 사투, 그리고 의료진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 병원 직원, 방역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러한 병렬적 서사를 통해 당시 중국인들의 미시적 모습을 함께 담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병원 건물과 병실을 형상화하기 위해 3층 높이의 웅장한 무

32) 중국의 인터넷 기사나 논문 등에서 가극 〈천사일기〉 관련 자료나 제작 일지를 찾아보면 2020년 2월 우한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도시가 폐쇄되자 당월 이와 관련한 가극이 기획됐고 9번의 대본 수정 작업을 거쳐 7월 리허설을 시작해 같은 해 10월에 초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염병 확산과 사망자가 속출하는 극한 시점에서 가극이 기획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나 현재까지 중국 측 문헌과 기록에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움을 일러둔다. (‘庆祝中国共产党成立一百周年优秀舞台艺术作品展演开幕’, 人民网, 2021. 04. 21.)

대 세트를 세웠으며 3D를 사용해 매우 입체적인 무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민족가극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극의 구성과 음악적 전개, 무대장치 등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완성도 높은 현대 서양 오페라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이처럼 가극으로서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하지만, 작품의 탄생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인구 1,100만 명의 도시가 폐쇄될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가극을 창작하여 그해 바로 공연한 의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 중국 문화부가 신속하게 이 작품을 민족가극 창작지원 작품으로 선정하고 지원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볼 수 있다. <천사일기>는 중국 정부가 민족가극을 지원하고 이유와 활용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지점이다.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갑자기 창작된 가극으로,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에 대한 중국의 책임 의혹이 제기되고, 우한의 환자 폭증과 사망, 폐쇄로 인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간두지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작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 우한은 1월 23일 도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가 4월 8일 해제됐다. 그리고 이 가극은 같은 해 10월 17일 초연됐는데, 제작일지를 찾아보면 도시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에 빠진 2월에 기획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020년 9월 8일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즉,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승리와 종식을 선언했다. 이 가극은 그에 맞춰 공연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가극 <천사일기>와 관련한 중국 측 기록이나 문헌자료를 찾아보면, 의료진의 희생과 중국 인민의 인류애, 단결 정신에 대한 찬사는 많이 보이지만 기획 의도나 배경에 대해 비판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천사일기>는 특히 2022년 12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주최하는 제 16차 영적문명건설 “오개일공정”(第十六届精神文明建设“五个一工程”)에서도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³³⁾ 중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 작품을 선정하는 프로

33) 영적문명건설 “오개일공정”(第十六届精神文明建设“五个一工程”) 중국공산당 중앙선

젝트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이 가극이 중국 방역정신의 승리를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민족가극 <홍군의 반쪽 이불>은 위에서 언급한 홍색 가극의 전형과도 같은 작품이다. 2016년 10월 후난성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홍군 대장정 승리 80주년 기념 회의에서 홍군의 반쪽 이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0년 9월 후난성을 다시 방문하면서 <반쪽 이불> 기념관에 들러 대다수의 당원과 간부들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붉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 이야기는 민족가극으로 창작돼 2021년 7월 초연됐다. 이 작품은 2018년 선정 작품으로 산둥가무극원에서 창작된 홍색 가극 <이몽산(沂蒙山)>을 계승하는 성격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시진핑이 마오쩌둥 주석의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한 <이몽산> 이후를 담당할 새로운 민족가극의 발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① <홍군의 반쪽 이불>은 1930년대 홍군 대장정 과정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1934년 11월 홍군이 대장정에 나서던 시기, 후난성 천저우시 루청현을 지나게 됐다. 이때 홍군의 여군 3명은 자신들을 재워준 마을주민 가족이 추위에 떨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불의 반쪽을 잘라주었다. 홍군이 떠난 뒤 다시 들이닥친 백군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홍군의 인자한 태도와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씨에 감명을 받은 마을주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홍군을 따르게 됐다는 결말의 이야기다.³⁴⁾ ② 이 작품은 중국 민족가극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판강체를 활용

전부가 주최하는 이 프로젝트는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중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를 선정하며 중앙위원회의 일부 부처와 위원회, 인민해방군 총 정치부가 대상이다. 중국공산당의 기준에서, 개혁, 개방의 성과를 찬양하며 젊은 세대의 건강하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정신 등을 반영한 우수작품을 발표, 시상하고 있다. (河北新闻网, https://hebei.hebnews.cn/2022-12/21/content_8919195.htm (검색일 2023년 2월 16일))

34) 여기서 홍군(紅軍)이란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을 말하며 백군(白軍)은 정적인 국민당 군대를 일컫는다.

하고 발성에 있어서도 민족 음악적인 기법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도록 노래하고 있다. 후난 지역의 민요를 기본적으로 하되, 혁명정신이 느껴지는 도전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음악들이 대부분이다. 이 작품은 전투 장면의 특수효과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격, 화약, 천둥과 번개, 눈보라, 하늘에 박힌 별, 붉은 태양 등이 특수한 장비를 동원하여 관객들의 몰입을 살렸다. 또한 음향 시스템을 3차원으로 구축하여 관객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등 높아진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시대 흥색 가극을 공연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22-23년도 중국 문화부의 민족가극 창작지원 작품에 이 작품이 선정된 것은 어떠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작업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후난에서 홍군의 반쪽 이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대장정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당시 국민당에 의해 수세에 몰리면서 정권도 놓칠 위기였던 마오쩌둥은 홍군대장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부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군의 반쪽 이불>은 대중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은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라는 것을 재인식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념 전파라는 민족가극의 장르적인 본질이 2023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의를 가진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념에 알맞도록 작품의 완성도와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최근 창작, 공연된 위의 세 편의 민족가극은 위의 의의에서 찾아본 것과 같이, 시진핑 3기 문화예술의 방향성이 더욱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 효과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예측한다.

V. 나가며

중국의 공산당 관련 인사들은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

의 사상이 중국 마르크스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믿는다. 이 이론 체계는 현대화의 모든 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최고 수준의 계획과 운영 경로를 구축했으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확실한 행동 지침”이라고 보고 있다.³⁵⁾ 문화 예술 측면에서 시진핑의 이러한 사상적 작업을 뒷받침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민족가극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中国民族歌剧传承发展工程) 선정 작품을 중심으로 집권 3기를 맞이한 시진핑 정권의 문화 예술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문화예술콘텐츠로서 대중적 인기나 별다른 자생력이 없는 민족가극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와 그 성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 민족가극은 문화정치적 양상을 띠며, 정권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것은 민족가극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순수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와 정책 방향성을 고정하려는 현 중국 지도부의 의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 ‘일대일로’와 ‘중국몽’ 등 외부 지향적이고 대외적 이미지를 중요시했던 그간의 정책 방향이 점차 내부를 향하는 것이 주요한 변화로 관찰됐다.

대표적 사례로 2021년 공식화한 ‘샤오캉’ 사회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시주석은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언급하고 2035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현저히 줄이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샤오캉’ 사회의 완성과 성취를 홍보하고,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다통사회’ 도달이라는 차기 목표를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표달성이 시진핑

35)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 <http://www.cppcc.gov.cn/zxww/2023/03/15/ART11678843239288103.shtml> (검색일 2022년 11월 30일).

집권 아래,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민족가극계승발전공정의 지원작으로 선정된 민족가극 26편의 주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 청년들이 고향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 총 26편 중 8편으로 전체 지원 가극 작품 중 1/3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청년들이 도시가 아닌 고향 혹은 농촌으로 귀향하거나 정주하며 지역을 일구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정의 가극들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시 주석의 연설을 뒷받침한다. 또한 불평등의 큰 요인으로 지목돼 온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공동부유’를 적극 실천하는 인물들의 서사가 가극을 통해 감동적으로 전개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중국 내부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최근 시진핑 정부가 큰 성과로 홍보해온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확고히 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애국주의, 민족화라는 이름의 자문화 우선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담은 가극 또한 지속적으로 창작, 공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이 주장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반영하여 극의 구성과 플롯이 보다 치밀해지면서 질적 수준과 완성도가 높은 사회주의 가극들이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중국의 가극은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창작되고 공연되며,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공식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태생적 한계와 제한적인 활용 양상에도 불구하고 민족가극은 서양의 오페라와 자국 문화를 결합하여 재전유 시킨 동아시아의 흥미로운 공연문화콘텐츠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가극과 문화 예술이 지나친 정치도구화를 지양하고 예술성 향상에 치중한다면 동시대 동아시아 공연예술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민족가극과 서양 오페라 문법에 맞춰 창작된 중국 현대 오페라의 비교를 통해 동시대 중국 오페라의 현황과 가능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민경찬 외,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 손수연·이병민, 「중국 신가극을 통한 동아시아 오페라의 재창조」, 『인문콘텐츠』, 제44권, 인문콘텐츠학회, 2017.
- 손수연, 「동아시아 공연예술콘텐츠로서 일본오페라의 소재적 다양성 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4호, 인문사회21, 2020.
- 손수연, 「현대 중국 민족가극을 통해 본 문화 정치적 양상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0권19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0.
- 왕단, 「중국어와 서양의 발성법 비교를 통한 중국발성법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주소연의 발성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 LIU AIZHEN, 「오페라 <백모녀(白毛女)> 연구: ‘희아(喜儿)’의 이미지 변천과 음악적 표현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 兰爱民, 『《白毛女》延安解放区首演成功背后的思考, 安徽省科学教育研究会安徽省老科技工作者协会』, 2020.
- 刘暄, 「当代中国民族歌剧的美学精神」, 『贵州民族研究』, 제6권 2018.
- 徐潜, 「中国歌剧的民族化与国际化趋势」, 『音乐生活』, 제4권, 2020.
- 李詩原·薺栢平, 『中國近現代音樂史卷-音樂表演藝術与作曲技法理論』, 人民音樂, 2008.
- 羨涛, 『中国歌剧艺术民族化发展及表演艺术研究』, 中国纺织出版社, 2021.
- 鲁雨奇, 『扎根沃土 走向世界 一论中国歌剧的民族化与国际化趋势』, 大众文艺, 2021.
- 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 https://zwgk.mct.gov.cn/zfxxgkml/wysy/202012/t20201205_916395.html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xinwen/2015-10/19/content_2950086.htm?gov, 2015. 10. 19.
- 福州日报社数字报, <https://m.gmw.cn/baijia/2021-01/19/1302051247.html>

百度 南充政法, [https://baijiahao.baidu.com/s?id=1746883170703766990
&wfr=spider&for=pc](https://baijiahao.baidu.com/s?id=1746883170703766990&wfr=spider&for=pc)

河北新闻网, https://hebei.hebnews.cn/2022-12/21/content_8919195.htm
2022. 12. 21.

中国共产党新闻网, [http://cpc.people.com.cn/n1/2021/0421/c64387-320
83424.html](http://cpc.people.com.cn/n1/2021/0421/c64387-32083424.html)2021. 04. 21.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 [http://www.cppcc.gov.cn/zxww/2023/
03/15/ARTI1678843239288103.shtml](http://www.cppcc.gov.cn/zxww/2023/03/15/ARTI1678843239288103.shtml) 2023. 03. 15.

〈ABSTRACT〉

The Direction of Xi Jinping's 3rd Term Cultural Arts through Chinese Opera

Sohn, Sooye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direction of cultural arts pursu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the government, who are in the third term, through Chinese opera. Since 2012, when Xi Jinping took office as supreme leader, China's cultural politic pattern of using culture and art as a political means is increasingly strengthened. It also can be found that opera is used as a useful tool for cultural politics. National opera, creat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1945 with the aim of effectively conveying socialist ideology and ideas to the people, has developed with the inherent limitation of political purpose, and is still recognized as playing the same role in Chinese society. This trend is getting stronger und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Since 2017, the Chi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they will support the entire process of creation and performance by selecting national operas with excellent quality and value,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lected and supported nearly 30 work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material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works on how the Chinese government uses national operas to strengthen the ruling power and political propaganda, and analyzed three of them in terms of content criticis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used opera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a "Xiaokang" society, attempted to change the

situation by wrapping the unexpected sudden spread of the COVID-19 virus with people's unity and sacrifice, and emphasize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National opera can be assessed as an interesting performing arts content that re-appropriated Western opera. If Chinese opera and cultural arts avoid being excessive political tools and focus on improving artistry, they will be able to contribute more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East Asian performing arts.

Key Words : Chinese Opera, National Opera, Xi Jinping's 3rd Term,
Xiaoka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ed
Opera, Ethnicization